

바르사 슈퍼컵 2연패… 엘 클라시코 승리

레알마드리드 상대 3-2 승
하피냐, 멀티골 우승 주역
대회 최다 우승 기록 경신

스페인 프로축구 FC바르셀로나가 '엘 클라시코' (라이벌 팀인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승리하고 2년 연속 스페인 슈퍼컵(수페르코파 데 에스파냐) 정상에 올랐다.

바르셀로나는 12일(한국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킹 압둘라 스포츠 시티에서 열린 레알 마드리드와 2026 스페인 슈퍼컵 결승에서 하피냐의 멀티골을 앞세워 3-2로 승리했다.

이로써 바르셀로나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결승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꺾고 2연패를 달성했다. 아울러 슈퍼컵 통산 16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대회 역대 최다 우승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했다.

스페인 슈퍼컵은 지난 시즌 스페인 프로축구 최상위 리그인 프리메라리가(라리가) 1, 2위 팀과 스페인 국왕컵(코파 델 레이) 우승 및 준우승팀이 출전해 챔피언을 결정하는 대회다.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 시즌 프리메라리가와 국왕컵에서 나란히 1, 2위를 훨씬 앞선 자격을 얻었다.

아울러 이날 승리로 바르셀로나는 공식전 10연승을 질주했다.

바르셀로나가 패배한 것은 지난



스페인 슈퍼컵 2연패를 달성한 바르셀로나 선수단이 기뻐하고 있다.

해 11월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에서 첼시에 진계 마지막이다.

전반 36분 하피냐의 선제골로 기선을 제압한 바르셀로나는 전반 추가시간에만 3골을 주고받는 난타전을 펼쳤다.

레알 마드리드가 전반 추가시간 2분,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의 득점으로 균형을 맞췄다. 비니시우스는 하프라인 부근부터 페널티 지역 안쪽까지 단독 드리블로 파고든 뒤,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훔들었다.

바르셀로나도 2분 뒤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의 추가골로 다시 리드를 잡았으나, 레알 마드리드는 끈질기게 추격했다.

추가시간 6분 코너킥 상황에서 딘 하위선이 시도한 헤더가 골문 안으로 향했으나 골 포스트 바로 앞에서 높게 뛰어오른 하피냐의 헤더 수비에 막혀 텅겨 나왔다. 그러자 곤살

로 가르시아가 문 앞에서 재차 밀어 넣어 승부는 다시 2-2 원점이 됐다.

후반에도 양 팀은 각각 7개의 슈팅을 기록하며 팽팽한 공방전을 이어갔다.

레알 마드리드가 5차례의 유효 슈팅을 퍼부으며 위협적인 공세를 펼쳤으나 바르셀로나가 하피냐의 결승골에 힘입어 승기를 잡았다.

하피냐는 후반 28분 페널티 지역 중앙에서 슈팅을 시도하다가 중심을 잃고 미끄러졌으나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

발을 떠난 공이 수비수 발에 맞고 굴절되면서 절묘한 궤적을 그리며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고, 이 골이 경기의 결승점이 됐다. 연합뉴스



기티스 파울라스카스 제주SK FC 제공

제주SK '피지컬 최강' 공격수 기티스 영입

장신에 결정력 탁월… 슬로바키아 리그 5골 3도움

세르지우 코스타 체제로 새롭게 출범한 제주SK FC가 공격력을 보강하기 위해 리투아니아 국가대표 공격수 기티스 파울라스카스(26)를 영입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기티스는 2017년 리투아니아 명문 클럽 FK 잘기리스 B팀에서 프로무대에 데뷔한 후 FC 벨리나우스 비티스(리투아니아, 2017~2020), FK 리테리아이(리투아니아, 2020~

2023), KF 에그나티아(알바니아, 2023~2024), 2024년 FC 콜로스 코밸리우카(우크라이나)를 거쳤다.

2025~2026시즌 MFK 쟈풀린 미할로우체(슬로바키아) 유니폼을 입은 기티스는 총 18경기에 출전해 5골 3도움의 맹활약을 펼쳤다. 리투아니아 국가대표로도 A매치 29경기 출전, 유로파리그 및 유럽컵리그 리그 예선 등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기티스의 자세한 계약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적료만 35만~40만유로(한화 6·7억원)를 넘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K리그1의 터프한 수비수들을 상대할 수 있는 196cm의 압도적인 체魄뿐만 아니라 드물게 지역에서 골 결정력이 탁월한 타깃형 공격수여서 유리 조나탄의 공백을 메울 적임자로 평가되고 있다.

기티스는 "내게 거는 기대감이 크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팀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붓겠다"고 입단 소감을 전했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대한항공·현대건설 '부상' 버티기 안간힘

프로배구 상위권 순위 요동

부상 악령에 신음하는 프로배구 V리그 남자부 1위 대한항공과 여자부 2위 현대건설이 '부상'에 들어간다.

두 팀은 2주 앞으로 다가온 올스타 휴식기까지 침체된 팀 분위기를 바꿔 현재 순위를 사수하기 위해 온 힘을 쏟을 각오다.

한때 큰 격차로 선두를 질주하던 대한항공은 최근 3연패를 당해 비상이 걸렸다.

아웃사이드 히터 경지석과 임재영이 각각 발목, 무릎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공격력과 수비력, 조직력이 한꺼번에 무너진 탓이다.

14승 6패, 승점 41을 기록한 대한항공은 2위 현대캐피탈(승점 38·12승 8패)과 격차가 승점 3차이로 좁혀졌다.

이번 주 일정은 녹록지 않다. 대한항공은 13일 OK저축은행과 홈

경기를 치르고 이를 휴식 후 16일 KB손보와 방문 경기에 나선다.

한때 여자부 1위를 넘보던 현대건설도 위기에 놓였다.

현대건설은 선두 등극을 노렸던 지난 7일 1위 한국도로공사에 0-3 완패하는 등 최근 3연패 수렁에 빠졌다.

도로공사와 격차는 승점 7차로 벌어졌고, 오히려 3위 흥국생명에 승점 3차 추격을 허용했다.

현대건설은 외국인 주포 카리가 이스버거(등록명 카리)가 양쪽 무릎, 토종 공격수 정지윤이 왼쪽 경강이 부상 여파로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빠아프다.

다행히 현대건설은 4일 휴식 후

16일 흥에서 최하위 정관과 만난다. 정관은 새해 첫날 도로공사를 3-0으로 완파하는 이번을 연출했으나 이후 흥국생명에 0-3, IBK 기업은행에 1-3으로 완패하며 꼴찌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연합뉴스



지난 4일 대한항공이 2위 현대캐피탈과의 경기 세트 패배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KOVO 제공

펜싱 여자 에페, 푸자이라 월드컵 준우승

펜싱 여자 에페 대표팀이 올해 첫 월드컵에서 단체전 은메달을 수확했다.

송세라, 박진주(이상 부산광역시청), 이혜인(울산광역시청), 임태희(계룡시청)로 구성된 여자 에페 대표팀은 1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푸자이라에서 열린 국제펜싱연맹(FIE) 월드컵 단체전

에서 미국에 이어 2위에 올랐다. 푸자이라에서 동시에 열린 남자 에페 월드컵에서는 한국이 단체전 10위에 자리했고, 개인전에선 박상영(울산광역시청)이 13위로 가장 좋은 성적을 남겼다. 연합뉴스

1위를 달리며 기대감을 키웠다.

대표팀은 16강전에서 이스라엘을 43-39, 8강전에선 폴란드를 39-33으로 제압하고 준결승에 올랐다.

준결승전에선 에스토니아와 접전 끝에 31-30 역전승을 거둔 대표팀은 미국과의 결승전에선 40-45로 졌다.

이번 대회 개인전에선 이혜인이 동메달을 획득했다.

푸자이라에서 동시에 열린 남자 에페 월드컵에서는 한국이 단체전 10위에 자리했고, 개인전에선 박상영(울산광역시청)이 13위로 가장 좋은 성적을 남겼다. 연합뉴스

제주SK '피지컬 최강' 공격수 기티스 영입

장신에 결정력 탁월… 슬로바키아 리그 5골 3도움

세르지우 코스타 체제로 새롭게 출범한 제주SK FC가 공격력을 보강하기 위해 리투아니아 국가대표 공격수 기티스 파울라스카스(26)를 영입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기티스는 2017년 리투아니아 명문 클럽 FK 잘기리스 B팀에서 프로무대에 데뷔한 후 FC 벨리나우스 비티스(리투아니아, 2017~2020), FK 리테리아이(리투아니아, 2020~

2023), KF 에그나티아(알바니아, 2023~2024), 2024년 FC 콜로스 코밸리우카(우크라이나)를 거쳤다.

2025~2026시즌 MFK 쟈풀린 미할로우체(슬로바키아) 유니폼을 입은 기티스는 총 18경기에 출전해 5골 3도움의 맹활약을 펼쳤다. 리투아니아 국가대표로도 A매치 29경기 출전, 유로파리그 및 유럽컵리그 리그 예선 등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기티스의 자세한 계약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적료만 35만~40만유로(한화 6·7억원)를 넘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K리그1의 터프한 수비수들을 상대할 수 있는 196cm의 압도적인 체魄뿐만 아니라 드물게 지역에서 골 결정력이 탁월한 타깃형 공격수여서 유리 조나탄의 공백을 메울 적임자로 평가되고 있다.

기티스는 "내게 거는 기대감이 크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팀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붓겠다"고 입단 소감을 전했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KBS 064-740-7331 / © MBC 064-740-2432 / © JIBS 064-740-7800 / © KCTV 064-741-7723 / © 제주CBS 064-748-7400 / © TBN제주교통방송 064-717-8114

오늘의 운세 13일



김종상 지단(知旦) 작병학 원장

경기대 평균원 교수 (010-5233-6136)

36년 즐거운 행복의 마음으로 자기회면을 걸자. 48년 불분별력이 필요하니 생각을 신중하게. 경기망동은 비웃을 대상이 된다. 60년 시기, 구설이 오가거나 소송건이 오니 매사 신중하는 게 좋다. 72년 화목이 필요하고 대인관계를 중시하면 신뢰를 얻는다. 84년 좋은 인연 만들기나 모임에 합류하는 게 좋다.

37년 하는 일에 변동이 오거나 정리하고 한다. 49년 학자금이 특기나 취미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 61년 직장이나 자식문제로 고민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73년 돈 문제로 다툼이 있으며 손재주가 있으니 자금관리 철저. 85년 열심히 노력한 댓가가 있다.

38년 병환의 회복이 더디다. 안전사고 유의. 50년 금전적인 문제로 시비나 다툼이 오거나 금전거래 시 자제나 보내기. 62년 휴직자는 일이 생기고 활동인은 업무가 가중돼 피로가 누적. 74년 해결되지 않은 일이나 주변의 도움으로 일이 풀려 나간다. 86년 내 의지대로 일을 추진해가면 일이 풀려난다.

39년 마음 먹은대로 일이 추진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는 게 좋다. 51년 결단을 내리고 때를 기다리면 소식이 온다. 63년 약속이나 갈 곳이 많다. 75년 사소한 언쟁이 사이를 갈라놓으니 미혼자는 이해타산을 둔히 하라. 87년 협조가 있어 일이 성사되고 결과가 있다. 은혜에 반드시 보답하라.

40년 친구나 주위와 음식이나 운동을 함께 한다. 52년 물질적 문제, 정신적 문제로 갈등이 생기고 직업으로 갈등한다. 64년 자녀 문제로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한다.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 76년 신경이 예민하거나 시력저하 또는 두통이 오니 무리하지 말 것. 88년 일이 필요할 때 주변에 요청하면 가능하다.

41년 사소한 일에 참견 시 큰 다툼이 되니 나서거나 강설하지 마라. 53년 남 앞에 너무 나서면 시기 미움을 사게 되며 때론 적이 되기도 한다. 65년 변화가 필요하니 맘껏 움직이는 것을 두려워한다. 77년 약속이 생기고 모임이나 친목에 나간다. 89년 외출이나 타 지역으로 여행이나 출장 갈 일이 생긴다.



42년 작은 일이라도 짐작하고 실천하면 그 결과가 좋다. 54년 확신할 수 없는 일은 매달리지 마라. 66년 가정 안에서 불화, 논쟁은 상처가 오래가니 대항하지 말 것. 78년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밀고 나가려는 집념이 필요하다. 90년 문서 관련 소식과 이야기 있다. 견강은 유의.



43년 전문직 업은 활기가 오니 직원 격려 필요. 55년 자녀 종 경사가 있거나 반기문 소식을 접한다. 67년 열정이나 의욕이 강한 날, 활동성 있는 업은 이익이 증가된다. 79년 상사와의 마찰을 피하고 동료 간 판계 개선 유지할 것. 91년 시비 구설이 오니 나서는 일은 신중하게 행동하라.



44년 일의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나 구사일생의 기분으로 새 출발. 56년 밤낮없이 일한 성과가 있으니 피로함을 잊는다. 68년 회사원에서는 화복에도 친切 또는 접안에 관심이 생긴다. 80년 직업을 갖기 위한 전문분야에 도전해 미래 준비를 하라. 92년 흥겨운 콧소리가 은은하다.



45년 문서로 인한 일로 신경을 쓰게 되거나 자녀 일로 걱정이 생긴다. 57년 재물이 들어오고 일거리가 생기니 적극적 활동이 요구. 69년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도 하고 일이 호전된다.